

담배는 아마, 일본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차등 공동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는 술과는 달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나, 친구, 가족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만, 그 사람 모두가 담배를 끊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금연학교를 계속 다녀도 결국 끊지 못하고 돌아와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끊는 것도 너무 어렵고, 몸에도 안좋은 담배를 왜 권장하는 걸까? 내가 가장 이해할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엔 여성들에게도 담배를 피우는 일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담배 피는 여성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술집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은 암과 같은 병에 걸릴 우려가 있지만, 여성 쪽은 암에 걸릴 위험도 있지만, 아이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 보다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담배가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의 아기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가 정말 나쁜거라고 확실히 인정하시는 분은 담배를 꼭 끊어 주세요. 담배를 끊는 분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일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겠지요!!

담배를 피우는 분께는 죄송스럽지만, 담배라는 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편이 가장 좋을거라 생각합니다.